

## 간호 연구 조사 개론

연세대 · 간호학과

==김 모 임==

「本文은 1964年 1월 大韓看護協會 主催 冬期 看護敎育 Seminar-“Research”를 爲한 Introduction으로 講義한 것으로 Captain Geissinger가 준비한 Tape 에 많이 의존했음을 밝힙니다.」

사람은 普遍的으로 사람 自身이 當面해야하고 또 解決하여야만 하는 問題에 둘러 쌓여 살고 있는것 같습니다. 이 問題(Problem)는 人生 自體와 같이 多變한 것으로 거의 하루도 우터 주위에 여러 局面에 대해 의문을 던지지 않고 지나쳐 버릴수 있는 날이 없는것 같습니다. 사람의 장래나 계획이나 욕망이라는것을 틀어 生變해 보면 적어도 자기가 어느 方向으로 머리를 두고 있는지, 또는 얼마만큼이나 진보했는지 아니면 한 걸음 가는 동료들과의 경우와 어떻게 비교되고 있는지가 알고 싶을 것입니다. 위에 이런 문제의 대부분은 이미 알았어야 할 사실에 대한 지식 부족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문제가 일어난 Situation 을 수습해 나갈 만한 새로운 지식의 결핍으로 문제

가 발생 한다고 하겠습니까. 문제(Problems)는 흔히 혼동되어 어렵게 보일므로 철학자나 다른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선 문제가 발생했던 Situation 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이해가 그 문제 해결에 기본이되는 요소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모든 문제를 어떤 특수한 Question 이나 Subproblems 로 논아서 정의를 내리기전에는 문제자체 모호성의 일부도 해명될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삶을 영위하기 위해 있는 모든 분야 사회, 경제, 정치, 교육, 의학 등등의 분야에서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문제를 통찰할 수 있는 능력 보강 방법으로서 Research 가 대두 되었으므로 20세기에 이르러 린저한 발달을 한것 중의 하나로 Research 를 장려하는 사회의 한 책임을 하는것 같이 느끼게끔 되었습니다. 따라서 看護事業도 Research 에 한 톨 끼어 참여 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大韓看護協會에서 時代的 要求와 思潮에 맞추어 Research 의 必要性을 직감하여 선진국인 미국에 비하면 약 반세기나 뒤떨어졌

으나 더 뒤지지 않게 Seminar 를 마련함은 큰 뜻과 가치가 있는 것으로 간호사실발전에 한 milestone 이 될 수 있는 제기가 되기 바랍니다.

### 1) Research 意義의 정의

Research 란 單語를 간단히 정의 하던 아래와 같이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 —「지식을 발굴하고 발전시키며 입증하는 한 노력이다.」 Research 는 수백년 이래 발달되어온 지적 과정으로 이를 사용하는 목적이 다. 연구하는 방법은 끊임없이 변화해 내려 왔습니다만 진리를 탐구하는 점은 변화가 없습니다. 인간이 지식을 얻는 방법에 있어서 여러가지 Evidence 의 Sources 를 사용해 왔는데 메로는 어떻게 지식이 존재 하게끔 되고 또 이 지식이 증명된바 사실로서의 지식인지 질문, 의문을 던져 불 없이 습관과 전통을 알아드리는 가운데 피동적으로 얻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인간은 자명하다고 생각되는 명제를 걸어놓고 지식을 삼 단논법적, 연역법적으로 추론 상고 해서 얻을수도 있고 또는 인간이 가진 문제해결 지식을 과학적인 조사 근거에 입각시켜 찾아볼수도 있습니다. 「미지」라는 말로 암시되어온 문제해결에 있어서의 인간은 Research Process 자체가 좀 더 엄밀하고 좀 더 식견 있고 좀 더 신뢰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수 있는 방법론적 제방법 발견 발달과 더불어 성장해 왔다고 할수있습니다. Research 는 문제 해결의 연구방법론적 연구방법으로 최선의 것으로 현 세대의 불가결한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 2) Nursing Research 이란 ?

Nursing Research (간호연구조사) 란 말을 오늘날 간호계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는 말로 쓰는 사람, 말하는 사람, 읽는사람, 혹은 듣는 사람에 따라 여러가지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Nursing Research 란 지난 십년간에 있어 향상된 보건사업의 시대적 요구와 성장이며 또한 간호라는 전문직업자체의 자가평창과 보다 나은 환자간호를 촉구 하는 앞으로 오는 세대의 요구사이에 자란 결실이라 보겠습니다.

다른 Research 에서도 마찬가지로 Nursing Research 는 적어도 하나 또는 그 이상의 Question 에 해답을 할수 있도록 Design 되어야 합니다. Research 는 때로 임상적 철저한 조사일수도 있고 실험적 연구일수도 있습니다. 여하간 조사연구에서 새로 발견된 사실 위에 근거를 둔 쓸모있는 새로운 사실에 대한 기재와 동시에 정확한 판단과 해석, 합리적이며 직감할수 있는 정확한 결론이 있어야 하며 그 새로운 결론, 이론,

법칙이 새로 정정된 사실로 실질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가 하는점도 포함되 있어야 합니다. 위에서 말하는 새로운 지식, 혹은 사실, 또는 진리를 간호학계에서는 Nursing Research를 통하여 찾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Research에서 궁극적 목적으로 하는 그 새로운 지식이라는 것은 반드시 의미 심장하며 중요하여야만 하고 또 즉시 실질적인 결과를 가져올수 있는 것이야만 하는가고 의문이 제기 될줄로 생각됩니다. 대부분의 간호원들께서는 실질적인 효과를 즉시 가져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실줄 믿습니다. 실질적인 결과를 이용하여 최선의 간호를 할수 있기 위해 우리가 배우는것이 아니겠느냐고 말씀 하실 것입니다. 즉시 환자간호에 적용해보아 Better Care 할수 있도록 공헌할수있는 사실과 지식을 가져다 주는 Research 이어야 한다는 점엔 이의가 없으나 좀 더 넓은 의미로 Research 라는 말이 뜻하고 있듯이 Research에서 얻은 지식이나 결과가 온전히 오늘날의 간호활동, 간호사업에 즉시 응용할수 없는 것일지라도 Better Nursing Care으로 이르는 길에 도움이 되고 자극이 되는 좋은 IDEA를 내포한 것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Better Nursing Care(보다 最善의 看護)를 하는것 이상에 또 다른 지식이 우리

에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Better Nursing Care가 되도록 하는 또하나의 노력을 기우릴 공약이 있으므로 Better Nursing Care를 직접 수행한다는 것은 간호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지킬 최소한의 공약에 지나지 않은 것입니다. 환자간호가 지식에 기반을 둔 기술 활동이며 행정일때 비로서 만족하고 안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전문직업에서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오늘날의 간호만큼 보다 많은 새로운 지식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는 것은 드물것으로 압니다. 우리 간호계는 우리에게 당면된 여러 문제(Problem)을 과학적 조사연구 방법에 입각하여 명확히 구명하여 문제(Problem)로서의 전면목을 들어 내놓는 연구가 우선 필요합니다. 그러자면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Question을 던져가며 Research를 해야겠으며 나아가 Research를 통하여 옳고 그릇됨을 가려내야겠으며, 평가된바 소견을 적용 실천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지식을 찾아 강행하는 사람이 되어 Research work에 자발적 참여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3) Nursing Research의 역사적 고찰

간호학계에 있었던 초기 Research

를 찾아보면 대부분이 Behavioral Scientist 들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페로는 유능한 간호원들이 보고 확증을 해준것도 있고 어떤것은 그런 확증이 없는 것이 많습니다. 여하간 대부분의 연구조사가 간호원에 의해서 검토된 것이 아니었고 또 그 연구조사의 특적이 어떤 상호관계, 자가개념, 상태, 태도, 만족을 위한 것이었는지 간호학 자체를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차츰 고등교육 또는 대학교육을 받은 간호원이 나오고 그들이 박사, 석사학위준비를 위해 Research 를 하기 시작했었는데 이도 또한 행위과학적인 면과 행정, 교육방면이었지 임상간호나 생물학적 견지에 입각한 환자간호에 대한 Research 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Research 가 제일 먼저 시작됐던 무렵에 간호원들이 한 Research 는 행정이며 교육현상에 관한 것이 많을뿐 이에 비해 임상실습에 관한 Research 는 아주 소수였음이 사실입니다.

간호역사를 돌아 보건데 Research 를 한 최초의 간호원은 Florence Nightingale 로 Nursing Research 의 Trial 들 시도해 본 사람입니다. Florence Nightingale 도 행정적인 급 Problem Design 등을 행하기도 했으며 Creman 전쟁시는 상이장병들의 질병간호에 대한 통계학적 연구조사를 했으나 다른분야의 과

학자들로 부터 확증을 얻지 못한채로 남아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미국에 있어서의 Nursing Research 의 역사를 들쳐 보면 Goldmark 씨가 Nursing Activities (간호활동)에 대한 첫번 조사(survey)를 준비해 1929년 발표했고 출판된것중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로 Brown 씨가 쓴 Nursing For the Future 가 1948년에 나오고 그후로 미국 간호계가 간호라는 전문직업에 대한 Research 에 관해 흥미를 갖기 시작했음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중거로 미국에서 세가지 운동이 싹트기 시작했는데 이 세가지는;

- 1) A. N. A. 제혁으로 간호기능에 관한 연구 푸로구람이 시작됐고
- 2) 정기 간행물로 Nursing Research 를 출판하자는 흐름이 었 보였고
- 3) N. L. N. 에서 간호학표준 구성 푸로구람이 대두 됐다는 점등을 들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Nursing Research 가 출판된것은 1952년 6월로 간호역사상 획기적인 사건이라 아니 할수 없습니다. Nursing Research 가 잡지르 출판된 당시 그들이 목적으로 했던것은 첫째 온전한 Research 라는 간행물이 나올수 있는 모체적 배경 역할을 하자는 것과 아직 이에 관한 지식이 없는 간호원들에게 Research project 에 대

한 지식을 보급하는 Media로 만들자는데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 간호계에서도 적어도 이런 적은 목적을 달성할만한 운동이 있어 소책자라도 발간되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 다음 Research Reports로 "Nursing School at the Mid-century"와 "Collegiate Schools of Nursing"가 발표 됐는데 이들 다 간호학교교육 교육프로그램의 재구성과 그 가능성, 또 진보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는데 실상 이 두 Research Reports가 지적한바가 전전히 적절히 시행 되려하는 새 프로그램의 발전을 도울수 있는 표준구성에 도움이 되는 Research가 아주 진요히 필요로 됨을 느끼게 되어 그당시 N. L. N.에서 Sponsor가 되므로써 본격적인 Research 단계로 오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Nursing Research가 본 계도에 오르기 시작한것은 오늘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석사학위과정 공부를 위한 Thesis(논문)이나 더 나아가서 고도의 수준의 학구적 연구라든가 박사학위 논문등이 필요로 됨에 따라 Research가 본격적 가치를 인정받고 성행하게 되었다고 보아도 무리는 아닐것입니다. 미국 간호계는 1930—1940도에는 고의로 임상의학 Research에 참여하게 하여 시작된것이 오늘날에 와서는 보다 나은 환자 간호

Better Nursing Care)의 질적 향상을 기하여 간호학뿐만 아니라 간호학을 위한 인접과학, 사회과학과 보조를 맞추어 가며 연구하며 동시에 환자간호에 관한 생물적 과학지식 보강을 강조하여 연구조사라고 있다고 합니다.

#### 4) Research를 하는데 있어 간호원이 가지고 있는 단점

첫째 간호원이 객관적일수 있겠는가? 하는 Question을 하게 됩니다. 왜냐 하면 앞으로 Research 방법에 대한 여러가지 사항을 강의 하실분이 말씀하시겠지만 Research에 있어서 선택된 문제(problem)가 topic 되어 연구가 진행될때 언제나 주관적 Bias를 떠나서 반드시 객관적일수 있어야 하는데 흔히 간호원들은 매우 주관적 입장에 서서 남을 돕는 인물로 묘사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환자로서 여러분의 Research 대상이 되어 드린다고 합시다. 아마 저도 사람들이 말하는것 처럼 간호원은 세상에서 가장 객관적이지 못한 사람이라고 한수 있을런지 모르겠기에 말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Question을 던질줄 모르는 습성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간호원들을 위한 학습과정이 원리를 근본으로 했다가 보다는 과정을 위한 과정

의 계속으로 지도를 받으면 그 학습 환경에 젖어드러가기 마련인데 아직까지의 교육에 있어 간호원으로서 교육을 받는동안 과도한 실습을 하게 하는 반면 Question을 할줄 모르는 사람을 만들어 버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들에게 어떤일이 마키워 질때 즉시 재치 있게 이행해 놓으나 한번 왜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품어 보지 않는 것이 우리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간호원들은 변화와 개혁을 위해 어떤일이고 하기를 꺼려하는 기질이 있다고 보아도 동서양을 막론하고 과언은 아니라고들 합니다. 우리 간호원은 Research를 할때 단점이 되는 이 모든것을 극복하며 Research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할것입니다. 환자간호를 향상시킬수 있는 진보된 새길을 객관적으로 탐구하는 지적 자극을 받아 Question을 던져가며 여러분 자신과 다른사람의 간호방법을 가슴을 더 놓고 타인을 믿으면서 비판적으로 평가해 보고 학자적인 예지로서 생각과 이념을 판정해 붙이 개념, 구성과정의 표시가 되며 그곳에서 곧 Research Idea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Research Idea는 우리 스스로가 애써 찾아야 하는것이며 찾아내기 원하든 바를 찾아 댔으면 그 소견을 적용해 보고 제일 처음시도

시험했던 것과 다른점을 찾으면 이것이 또하나의 새로운 Idea가 되고 Research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환자간호에 대해 Question을 던질수 있는 간호원이면 Research work을 할수 있는 분이며 Research work을 할수 있는 분이면 또 환자간호방법을 향상시킬수 있는 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은 우리 주위에 있는 문제중 Problem이 되는 것을 조직적인 조사, 조직 계획적인 노력을 기울려 Question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한 일련의 활동속에 환자간호를 향상시켜야겠다는 이념이 있으면 이 이념이 실질적으로 환자간호를 향상시킬수있는 경지에 이르게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 5) Research에 있어서 Systemic과 Question이 갖는 의의

앞에서도 Research에 대해 정의를 내린바 있습니다만, 과학적 연구조사(Scientific Research)는 보통수단으로 얻을수 있는것 보다 더 적절한 문제 해결책을 얻기 위하여 특수한 Tools와 Instruments와 Procedures를 기용하는 조직적이고 세련된 사고기술(思考技術)이라고 말할수 있을만큼 조직 체계적인 것이 중요합니다. Research는 문제로 부터 시작해서 Data와 Facts를 주어 불

으며 또 그것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나아가서 실질적인 Evidence 위에 기반을 둔 결론에 도달해야 하는 것으로 누가 보아도 조사가 이 연구를 무엇을 성취코저 하였으며 조사, 연구자의 제의를 [알아 볼수 있도록 간결명확하게 그 특징이 그려져있음을 조직적이고 계통적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Research에 있어 계통성 조직성을 잃었을 때는 Research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Research는 사실을 증명하고저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사실을 아는데 목적을 둔것임엔 틀림이 없습니다. 또 Research Question 없이 있을수 없는 것이나 이 Question은 불가피하게 해답이 절 때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Research(연구조사)할수 있는 형태의 Question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Research에 있어서 Question이라는 단어는 Research의 방향을 제시해주는것으로 Research에 Key의 역할을 할만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재언해 두지 않을수 없습니다.

#### 6) 왜 간호원이 Research를 해야 하는가?

왜 간호원이 Research에 관여 해야만 하는가에 의심을 가지신분이 있으실까봐 여기 그 해답으로 1958

년 A. N. A. Convention 석상에서 논의 했던 아래와 같은 구절을 소개합니다.

「여하한 전문직업이라도 전문직업으로서 갖는 지식의 향탄에서 진수할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이 지식은 전문직업인이 취급하고 있는 Problem과 Situation에 적용될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진실로 조직 계통적인 지식이 아닌 전문직업은 확실히 자가당착에 걸린것이다.」

「사람은 자기의 정신적 능력 한계 내에서 사고한다든가 이성애 따르는 능력이 있는 것이 교육 받은(비단 간호교육만 제외될수 있는가?) 사람의 특징적인 표시이어야 한다.」

「간호학은, 생물기능학, 행위과학에 원리를 둔 예술이며 과학인 학문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간호학이 연구조사 할만한 Problem을 가지고 있지 않다거나, 또는 이 problem들이 조직 계통적인 연구조사가 필요로 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할수 있으시겠습니까? 또는 간호학에서의 Problem이란 결국 어떤 해답도 찾아낼수 없는 길에 도달할수 밖에 없는 Questions만을 가지고 있는 학문이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여기 근본적인 Nursing Research가 필요로 되는 부문 몇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간호원의 개성, 성품, 태도라든가, 병원환경, 임상간호법, 간호하는 사람들간의 대인관계, 간호에 대한 환자의 반응, 의사통신, 인적 자원배치와 그 적응도, 행정적 역량, 종종 헤아릴수 없는 문제들이 Research Topic이 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의해 환자간호가 지대한 영향을 입으면서도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는것 같이 환자간호, 치료가 시작되고 끝나고 하는것이 우리의 현실이라 하겠습니까. 한 전문직업인인 우리는 우리의 위치를 발견 인식하여 무엇을 할것인지 판단하여 Problem을 풀어 나갈 책임이 있습니다.

#### 7) Research에 참여 하는길

1963년도 Nursing Out Look, 2월호에 보던 미군간호장교, Colonel Werely의 Article이 실려있습니다. 그 가운데 간호원이 Research에 참여할수 있는 길을 다섯가지로 나누어 제시 하였는데 그 다섯가지 방법은;

1) Medical Research의 대상이 된 환자간호를 맡은 간호원이 Research Team의 일원이 되더라도 환자개인에 필요한 사소한 간호를 해주는 것으로 Research 보조자의 역할을 하는것로 참여 할수 있는것으로 그 간호원 자신이 받드

시 자기를 Research Team의 일원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으며 간호원으로서 자기가 맡은 환자의 간호의 의무를 느끼고 실행하는것이다.

- 2) 간호원이 Technician으로서 한 기술자로서의 역할과 간호원으로서의 자기 의무를 수행해 줌으로써 Medical Research를 하는 Medical Investigation을 돕는 길.
- 3) Consultant의 역할로서 간호원, 다른 동료, 혹은 제자들 Advice하며 동시에 Research Project를 간호학적 해석을 한다든지 또는 의논의 상대자의 역할을 하므로써 참여하는 길.
- 4) Research Team에 일원으로서 참가하면서 Research Project의 모든 부면을 같이 논아서 일하며 확증도 해주는 증언으로서의 역할도 한다. 이렇게 참여하는 간호원은 Problem의 계통적 서술서부터 과학적인 논설,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까지 참여하는 길.
- 5) 간호원이 Investigator가 되어 직접 간호학분야에 있어서의 Research를 지휘, 감독, 수행하는 역할을 하는 길.

이상은 고의적 구분으로 아주 단순한 것에서부터 가장 복잡한 역할에 이르기까지 다양각색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Research에 대하

여러가지 다른 재능과 지적 과정의 색다른 응용, 형태, 심도와 여러가지 다른 마음가짐, 정신무장, 태도와 책임감에 맞추워 참여 할수 있리고 생각합니다. 간호원들이 실지로 관여되어 있는바의 이런 역할을 간호학이 인정하고 동시에 개인의 소질이나 교육 또 Research Continuum (연구조사속성)에 따르는 이 여러가지 점의 필요성이 인식되기 전까지는 Research 에 대한 우리의 위치, 경력, 계획의결에 아무런 진전도 없을 것입니다.

#### 8) 임상간호 Research 의 위치

선진국에서는 임상간호 Research 를 위한 능력있고 적합한 Research 간호원 배치가 요구되고 있다고 합니다. 임상간호연구조사를 위한 Research 간호원은 반드시 임상적이어야 하며 여기 저기 산재되어 있는 연구조사발전을 위한 Assignment 을 Full-time 으로 공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뿐만아니라 참한 간호원 연구조사자가 뛰어난 잠능적 능력이 있어 보이는 간호원으로 이를 위한 기본교육이 필요로 되는 간호원에게는 여유있는 시간을 주어 성장할수있는 특별한 기회를 줘야 할것입니다. 현재 우리들 대부분이 Medical Investigator 를 보조하는 방법에 거의 익숙치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

다. 보조적역할이나 기사, 기술자적 역할이란 간호원이 환자치료에 필요로 되는 검사물 수집을 한다든지, 필요 적절한 Data, 기록, 관찰, 또는 경우에 따라서 기계적 조작을 돕거나 Data 를 수집하는 일을 하므로서 환자를 위한 간호를 하며 동시에 Research 를 보조 할수 있는것을 말합니다. 이런 역할로 참여하는 간호원은 일반적으로 Problem 을 체계적으로 서술 한다든가, 또는 개념화 한다든가, 가설화 한다든가, 좀더 나아가 Research Project 를 계획하는 사람들 틈에 포함되지 않으며 Data 를 검토 분석하고 실제로 Reports 를 작성하는 일엔 참여하지 않는것이 상례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연구조사 시행중 성취하고자하는바에 그 간호원의 특수한 양식이 도움이 될때는 그 간호원의 충고를 받기도하는데 이런 경우는 흔히 간호학과 관련돼 있을 때에 한한 경우입니다. 여하간 이런 경우에 처해 있을 때 그 간호원은 Consultant 으로서 Research 내용에 대해 정확하고 엄격한 주의가 중요시 되는 점을 깨달아서 먼저 그 연구조사의 Direction 을 온전히 알기 위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보조가 Research 에 대한 지식, 그 Research 가 지닌 전반적 목적에 관한 지식 또 Total Project 의 계획안

---

에 대한 인식과 지식 없이 가능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때론 어떤 간호원이 자기가 행하고 있는 것이 Research Plan의 일부인지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있을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 간호원의 Research에 대한 지식부족을 나타내는 것으로 눈치가 빠르지 못함만을 그 전적인 이유로 들수 없을 것입니다.

간호원이 다른분야의 Researcher들과 동료자적 입장에 서지 못하는 이유를 들어보면 일반적으로 Research Design(연구조사 방안)이나 Methodology에 있어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며 이외도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Problem을 지속적으로 이끌고 나갈만한 광범위한 지식을 널리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사실 Research로부터 간호원이 제거되다싶이 된 다른 큰 이유는 Nurse Staffing의 전통적 방법사용으로 Research Nurse가 될수있는 전도를 기회를 막았던데 있다고 할수있습니다. 우발적으로 우리주위에 있었던 Research planning이나 Conference가 있을 때 간호원이 다른 연구원들처럼 환자를 내버려두고 나가서 참석할수없다는 이유로 참석할 기회를 모두 잃어온 것입니다. 이로인해 다른분야의 Researcher들과 보조를 맞추어 진출할수 있었던 길을 동시에 잃

어버린 것이며 간혹에는 Research Personnel 양성의 기회를 스스로 묶어버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앞으로 과학적이고 전문적 직업분야의 Research Worker들과 동료자적 입장으로 참여하려던 간호학계에서는 적어도 몇사람의 간호원만이라도 그들이 흥미를 느끼고 있는 임상분야 간호에 바탕이 되는 지식을 주는 기초과학분야에 전문가가 될수있는 기회와 유능한 Research 간호일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자기분야에 전문가이며 능통한 Research Nurse가 나와야만 그때 비로서 보조를 맞추어 걸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 9) Research Nurse는?

Research에 있어 간호학분야는 너무도 적은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Research Nurse는 어떤형의 사람이야 한다고 묘사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반 과학자나 Researcher에 대해 서술되어온 많은 얘기에서 대부분의 연구조사(Research)는 독창성창작성이 있어야 한다고 함으로 Research를 하는 사람의 속성으로 이 점을 잠재적으로 긍정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모든 Researcher가 다 장작적이고 상상력이 있으며 고도의 자제력이 필요로 된다고는 생각지 않는다고 말하고 받

면에 어떤사람은 Research를 하는 사람의 특성으로, 유유하다든가, 방법론적이며 철저하고 오래참고 견디는 성질 등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규모의 Research Project를 수행하는 Research Institution에서는 여러가지 형태의 인적자원을 조직적으로 staffing 하며 Research 속성에 따라 쓸모있게 배치할수있는 기회가 있어 다 일률적인 특성을 가진 Research만 필요한것은 아닐것입니다. 이런경우 충분한 수의 준비된 Research Personnel이 있어서 그들이 Mentors로서 봉사하여 연구조사방법 실행의 때 단계마다 같이 일하는 다른 동료들 인도하고 안내해 줄수도 있을것입니다.

#### 10) Research 가 내포하는 뜻

“Research”라는 말은 오늘날 너무나 흔히 여러모양으로 사용된말로 꽤 파토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실은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Research라는 말이 무엇을 뜻하고 있는지 또는 Research Situation이니 Research Analysis니 하는등에 있어서도 그 내포된 내용이 어떤것인지를 늘 깨닫지 못하고 사용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사람들이 이에 관해 정의를 내려 말하기를:

Research는

- ① 「연구를 위한 욕구」라 했는데 너무 모호한 정의 이고,
- ② 「그저 「Data」라고 했는데 이 Data는 부적절, 부정확하게 수집경우도 있으므로 적합치 않으며,
- ③ 「발견된 소견의 검토」라고 했는데 이것은 Data를 요약해는 감이 있는 정의이며,
- ④ 「Data를 사용한 사고(思考)」라고 정의해본 이도 있는데 이는 研究의 특성을 상실한 감이 있다.

1959년 2월 Nursing Research Conference에서 Lueile P. Leone 이 이에 관해 첨부한바가 있는데 그 내용은

「우리 간호원은 Research를 시작하기전에 Research를 수행해야할 분야에 있어 전문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John H. Glenn이 우주간 비행은 카치고 미 상, 하의원 연합회석상에서 1962년 2월 25일에 한 역사적 연설문 가운데 Research에 관련된 흥미로운 구절이 있었는데 오늘 그말을 인용하여 Research가 내포하고 있는 광범위한 뜻을 대신 하려고 합니다.

「지식은 지식을 낳고, 내가 알면 알수록 더 감명 깊게 느끼는것은 우리가 얼마만큼 아는것에 기인되어서

가 아니라 아직도 비개발된 얼마나  
광활한 지역이 있음에 기인한 것입  
니다.」

### 11) 간호학계에 좀더 많은 Research 가 있어야겠다.

지난 십년간 미국에서 출판된 잡  
지등의 논설난을 보면 간호계 지도  
자나, 다른 연구생으로 Nursing Re-  
search에 흥미를 가진 분들이 임상  
간호, 간호실습의 실험적 연구조사  
부족을 크게 강조하여 다루고 있음  
을 알수 있습니다.

이 연구조사(Research)가 성황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를 그들은 몇가  
지로 나누어 생각했는데 그중 주요  
한 원인으로서는 생물학적 단위로 환  
자간호 연구조사에는 환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조종할수 없는 변화  
와 또 간호원과 환자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복잡 미묘한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Variables을 이끌어 해결해  
나나가기엔 여러가지로 알기 어려운  
막연함이 있기 때문이라는것이며 또  
한 간호원이 이 미묘하고 착잡한 단  
계를 어떤 실험적 Design을 하여 수  
행해 낼수 있을만큼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점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 간호원은 Test Tube이나 동물  
실험을 포함한 실험실내 연구조사로  
서의 실험적 방법론의 Research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외에

다른 이유를 들라면 Research를 지  
휘하고 참석할 기회가 부족하다는점  
과 특별히 연구에 적절한 임상환경,  
구조가 없음을 이유로 들수있다고  
합니다.

간호학의 임상간호법은 거의가 경  
험주의에 기저를 두고 있다고 해도  
파언은 아닐것입니다. 간호법, 간호  
실습에 기저가 되는 그 Underlying  
Reason이 알려졌것이거나 안알려진  
것인 것을 막론하고 개인 실습자의  
성공여하에 그 결과가 매달려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  
다. 즉 한 간호원이 교육을 받는 동  
안 그의 기초과정에서 어떤 성공적  
인 간호방법이나 태도를 배웠다면  
그 간호원이 이성 합리적인 자발적  
고찰없이 그저 그 간호방법에 매달  
리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것이 실험적 증명이나 Research  
결과가 간호방법의 完全性, 安否性을  
증거하는 증서로서 사용되어오지 안  
했다는 사실을 밝혀주는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체온측정에 관한 한 예를  
들겠습니다. 아무도 내가 체온측정  
에 있어 完全한 지식이 있어 완벽할  
수 있다고는 말할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년간 의사는 진단이나 질  
병의 예후를 암시 해주는 Cardinal  
Sign으로 우리가 측정함과 체온치를  
밀고 있으며 또 수 많은 Medical

studies가 이에 기반을 두고 시행되어 내려옴은 사실입니다.

구강체온 측정방법은 간호법으로 아주 상식화한 것으로 아무런 질의와 의심없이 간호원의 관찰 측정이 수락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체온은 Nursing Team 가운데 비전문직 직업인에 의해 흔히 측정되고 기록되고 있으면서도 Reading의 정확성에 대하여도 거의 의심을 품고 있지 않은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구강체온 측정에 관한 Medical Research를 했는데 대부분이 "Normal"을 주제로 했고 또 구강체온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가지점에 관한 비교연구들이며 이두점에 있어 비교적 광범위하게 연구되어 있을뿐이기 때문입니다. 또 현재까지 출판된 Research Reports(美)에 나타난바에 의하면 구강체온 측정에 관해 Classical Experimental Design으로 공고한 조종을 강요하는 연구는 비교적 없었고, 구강 체온측정이 진단과 예후안내로써 흉문이나 역와 체온측정보다 자주 사용되에도 불구하고 체온에 관한 Research의 대부분이 흉문이나 피부체온에 관한 것입니다.

종종, 구강체온측정이 세가지 체온측정 방법가운데서 가장 정확치 못하다는 비평을 받는데 왜냐하면 뜨겁거나 찬물을 마시거나, 이야기를

한다든지, 담배를 피운다든지, Chewing gum을 씹는다든지, 하는 여러가지 요소가 체온의 변화를 가져올수 있기 때문이라는 점에서입니다. 1948년에 Brim과 Chandler가 이에 관한 연구를 한 결과 담배피우는 것이 구강체온에 변화를 가져온다는 찾아낸 사실을 보고 했습니다. 명백히 말해서 이 보고에 관해 아무런 의심도 의문도 없이 그저 인정해오다가 Wrair에 있는 한 간호원이 의문을 제기하므로써 새로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간호원은 보고된 소견들이 구강체온 측정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 있는 것이 라면 실험적으로 증명해서 성문화된것이나? 이런 현저한 차이가 Nursing Personnel 문제와 어떤 관련이 필단름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점이였습니다. 그후 시행된 구강체온측정에 관한 연구조사의 목적은 두가지로 근본적으로는 구강체온측정에 기저가된 선택된 간호원리의 Identify이고 이차적으로는 임상간호의 다른 국면을 연구하고자 하는 Research를 위한 Data 수집에 대한 전통적실험연구조사 방안을 사용하는 Pattern을 만드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Experimental Approach는 관찰을 하고 분석해 보므로써 직접적으로 확증될수 있는 가설을

체계적으로 서술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이방법은 보통 Experimental Group과 Control Group으로 나누어서 연구발단에서 부터 비교적 동종 동질의 구류 성질을 갖게하여 연구조사한 결과로 나온 Data를 Variance statistical Test를 이용해서 분석하였더니 아래와 같은 사실을 발견했다고 보고 했습니다.

- (1) 담배 피우는 것은 열이 없는 환자의 구강체온에 별르 차이를 가져오지 않는다.
- (2) Chewing Gum도 위와같은 환자 상태에서는 아무런 변화도 가져오지 않는다.
- (3) 뜨겁고 찬 음료수를 먹은후 정확히 재보너 상당한 변화를 가져온다.

열없는 환자에 있어서의 구강체온에 Smoking과 Chewing Gum의 영향에 관한 결정적인 진술증명을 한것입니다. 여기서 실험적 연구방안은 임상관찰에 의해 지지 될수 있는 Data를 조달해 주었습니다. 위 연구조사에서 Control Group과 Experimental Group 사이에 있었던 차이점은 극소한것으로 화씨 0.2 - 0.8 정도임으로 이차이는 Temperature Reading에서도 발생할수 있는 착오일수도 있고 또한 열없는 상태에 있는 환자에게는 생물학적으로 보아서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보아

도 과하지 않다고 볼경도 였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이제 도달한 결론은 먼저 공개된 소견 즉 Smoking과 Chewing Gum은 구강체온측정에 차이를 가져다 준다는것과는 아주 반대현상의 사실이 보고 된셈입니다. 위에서 논의된 두 연구조사를 통해서 어느 한사람의 연구만으로써 열있는 환자에 있어서의 체온변화는 어떻다고 결정적으로 서술 할수는 없으나 이렇게 Research를 해서 얻은 소견들은 보다 나흔 환자 간호를 해줄수 있는 큰 Challenge가 될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 12) 간호학계의 Research

앞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Research"라는 말은 오늘날에 와서 이상한 힘과 마력이 붙은말로 되어가고 있으며 간호학에 있어서 뿐만아니라 인간의 활동이 있는 모든 분야에서 마찬가지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다싶이 Research에 기반을 둔 지식, Information이 모든 종류의 Problem에 즉시 쓸수 없게 되는일이 생긴다면 오늘날의근대생활도 곧 마비되고 말것입니다. 전세계를 통해 더일 또는 시각마다 Research 수행을 요구당하는 사람, 적어도 다른사람이 쓴 Research Reports를 읽고 분석해서 자기 행동으

로 옮길 수 있도록 되어야하는 세상입니다. 이런방법으로 해서 지적 행위동작이 보통 행위 동작의 대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Research가 몇사람들만에 의한 Business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일로 되었습니다. 모든 전진한 變化를 위해 선행되어야 Research가 선행되어야할것으로 오늘날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Research를 통해 얻은 Data가 變化를 위한 기반으로서 봉사해주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보다 더 조직적이고 통찰력있는 간호와 간호교육연구소가 필요로 되는 세대는 일찌기 없었을 것입니다. 간호학에 대한 전통적 개념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고집하고 있는 경우를 보는데 이 개념은 이미 사회산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Nursing Need's 당면할수없게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간호학에도 사회개혁에 따르는 개혁이 단행되고 있지 않은가고 말하고 있습니다. 환자간호향상에 원만한 공헌을 할수 있으며 좀더 체계적이고 투철한 Nursing Research가 나오는 정도에 따라 간호학 인식의 도도 증가 될것으로 확신하는바입니다. 지난 몇년간 미국 Nursing Literature에 실린 연구 논문수의 증가가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 됩니다.

우리 한국 간호계에 있어서도 보

다 철저하고 광범위한 Research가 여러방면으로 필요로 되고 있으며 또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근대 Research 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은 유능한 Research Nurse가 나와서 Research를 하고 거기에서 발견된 소견을 임상간호법이나 간호교육향상을 위해 조직 체계적으로 적용해볼수있어야 겠습니다. 간호원이 아닌 사회학자, 심리학자, 정신의학자외 기타 다른 전문가들이 간호학이나 간호원에 대한 연구를 할수도 있겠습니다만 학자들의 개인적 편견이나, 특수한 자기 개인의 지식과 경험과 인식으로 Nursing Problem을 관촬하게 되기 때문에 최종적 분석에 있어 여러가지 다른 의도가 실린 결과를 초래하고 말것입니다. 그러므로 간호원은 스스로 공부해서 Research Finding이 진실로 환자간호향상에 이바지할수 있다고 생각 되면 몸소 Research에 참가해야 할것입니다.

아직 미국에 있어서도 초창기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Nursing Research가 간호원 자신에 관한 것이 아니면 간호교육 행정에 관한것이고 임상간호, 실습에 대한 연구가 될것은 최근 몇년간에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배전의 노력을 기우려 간호학의 그 어느 부문에서 부터라도 Research를 수행하는 우리들의 의

무와 책임을 다하기 전까지는 임상 간호나 교육에 있어 실질적 큰 향상은 기대할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경고해 두는 바입니다.

참 고 서 적

1. Some Trends in Nursing Research—By Helen C. Belcher and Elluynne M. Vreeland, 1961
2. Experimentation in Nursing Practice in the Army—By Phyllis Jo. Veronich, Harriet H. Werely. Nursing outlook. March, volume 11, 1963
3. Research in Nursing—By Loretta Heidgerken. An address at the Cheif Nurses' Conference 1958
4. In Introduction to Research Procedure—By Rummel, arper & Brothers. Publishers, New York, 1958
5. Research in Nursing—By Army Frances Brown, W.B. Saunder Co., 1958
6. Introduction to Research—by Tyrus Hillway, Houghton Mifflin Co.

간호학교 졸업생 중 우등생 명단

- |   |   |
|---|---|
| ▲전주 간호학교<br>이 정자 권 일순 공 숙자 홍 성년<br>임 경자                             | ▲수도의대 간호학교<br>혈 춘희 이 편숙 한 송자                  |
| ▲마산 간호학교<br>황 정순  | ▲서울 보전학교<br>신 일순 노 춘화 신 희자 김 문숙<br>허 명철       |
| ▲대전 간호학교<br>유 춘희 윤 증섭 김 윤희  | ▲적십자병원 간호학교<br>박 정숙(보건사회부장관 급 대한적십자<br>자 총재상) |
| ▲춘천 간호학교<br>이 영옥 조 영자 김 옥화  | ▲철도병원 간호학교<br>은 경자(교장상)                       |
| ▲전주 예수병원 간호학교<br>이 숙자 김 태숙 김 공자 유 숙자<br>김 혜경 김 홍숙 최 향림 전 영희<br>오 은자 | ▲대구 동산병원 간호학교<br>강 석자 박 정순                    |
| ▲순천 간호고등 기술학교<br>김 옥자 이 영자  | ▲연세대 간호학과<br>서 명숙 이 영희 이 방자                   |
| ▲전남 의과대학 간호학교<br>조 순덕 임 문자 오 순옥 김 명자<br>신 명순 김 화선(실습상)              | ▲이화대 간호학과<br>김 수지 이 유정                        |